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남시다” 비정규직 대표 100인 기자회견

- 발신 :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문의 : 김수억 010-9792-4788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참가 : 비정규직 대표 100인

-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비정규직 그만쓰 ‘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3.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말을 수시로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100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요청합니다.
 4. 이에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100인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알리는 ‘비정규직 대표 100인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3. 비정규직 대표 100인 명단

첨부자료 4. 비정규직들의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남시다” - 비정규직 대표 100인 기자회견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시간 :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
- 주관 :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참가 : 비정규직 대표 100인

○ 순서 (사회: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 1,100만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 명단 발표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100인과 대화” 의 8대 주제 발표

①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그러나 정규직화 제로시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입니까?

- 대통령 첫 방문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0명입니다. (인천공항 수하물지회 정해진)
- 자회사를 만들어서 임원 퇴직후 일자리만 마련합니다. (산업은행 승강기관리 남용진)

② 고용이 안정되게 하겠다고요? 지금도 해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비정규직은 해고됩니다.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습니다. 왜 부당한 해고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 법원정규직 전환하라는데, 12월 31일 해고됩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황호인)

③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인 비정규직을 괴롭힙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재벌대기업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을 괴롭히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범죄에 눈감으려고 합니까?

- 10대재벌 불법과건 해결 약속, 왜 지키지 않습니까? (현대차전주 비정규직 이병훈)

④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약속했지만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며,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아직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합니까?

- 나와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발전 비정규직 이태성)

- KT 화재로 통신대란이 벌어졌을 때, 수습은 비정규직들이 했습니다. (KT상용직 김철수)

⑤ 비정규직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로 단속 처벌하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말뿐, 아직도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의한 폭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을 개정해서 노조할 권리 보장하십시오. (화물운송 노동자 김정환)

- 노조 가입했더니 침 뱉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최현진)

- 노조를 만들었더니 바로 해고해버렸습니다.(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차현호)

⑥ 성폭력, 성희롱에 내몰린 비정규직,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현실은 바뀌고 있습니까? 성희롱과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 기간제 교사 성폭력 경험이 54.5%입니다. (기간제교사 박혜성)

⑦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벌대기업들은 100% 하청으로 일하는 공장을 만들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 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의 전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어떻게 확산할 것입니까?

- 원청의 책임부터 묻길 바랍니다. (광주 위아 비정규직 정준현)

⑧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인다는 약속, 어디 갔나요?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법을 개악해 산업범위를 확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20년 1만원 약속도 지키지 못하겠답시다. 노동시간은 어떤가요? 주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더니, 사업주 처벌은 유예해주고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임금은 삭감시키는 나쁜 법입니다.

-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상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러자고 최저임금 올렸나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안명자)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노동시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로 피해를 당합니다. 언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까 (출판노동자 안명희)

3.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 대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권영국 변호사

4. 향후 계획 발표

- 김수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5.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 만남시다

불의한 정권을 퇴진시킨지 642일, 장미대선이 치러진지 582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로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달콤한 광장의 기억으로 버틴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였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희망을 꿈꿨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인천공항에서는 그 어떤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가르치는 한국잡월드, 불법과건 판결까지 받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되는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라는 가짜 정규직으로 뒤바뀌었고, 지역과 학생들을 상담하는 화성시 상담사 선생님들은 12월 3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던 2018년 12월 8일 오전 7시 35분. 가장 당황한 것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현재 어떤 상황이고, 무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정보와 소통의 부재. 시스템에서 소외된 승무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군분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TX 선로이탈과 KT 통신대란을 비롯한 연이은 사고의 다른 이름은 위협의 외주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습니다. 10대 재벌그룹의 불법과건을 바로잡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31일자로 해고됩니다. 현대차 계약직 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했다고 해고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기아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했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과건을 저지른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한국지엠 카허카젼 사장 등 재벌총수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 고도 약속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일 굴에 침을 맞고 폭행당했습니다. 대리점이 폐쇄되고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됐습니다. TV와 모니터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178명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0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하루평균 6명이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발전소 사망 중대재해 중 97%가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 전에, 나와 내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넝마주이가 된 최저임금 1만원, 탄력근로제와 처벌 유예로 무력화된 주52시간, 지금도 해고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기간제 교사, 중도 계약해지로 겨울이 두려운 청소노동자, 프리랜서라는 말 속에 생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한 1년 6개월이 만든 일자리 풍경입니다. 직장이 지옥이 되는 동안 대통령은 사장님과의 호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청와대로 초대하고, 자영업체와 중소기업체 사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연봉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총액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재벌들은 줄줄이 면죄부만 받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남시다. 비정규직과 만남시다. 해가 가기 전에 만남시다. 청와대든 광화문 광장이든 TV토론이든 어디서든 좋으니 한 번 만남시다.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재벌들도 만난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비정규직 제로시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이자 고통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비정규직 100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과 사회단체도 함께 요구합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촛불을 들었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불법과견정규직 전환과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조법2조개정과 1100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를 요구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문재인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첨부자료 3> 비정규직 대표 100인 명단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비정규직 100인 명단

(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비정규·인권 활동가 6명)

<가나다순>

1. 강동인 현대위아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 곽경준 화성시 소각장
3. 구슬아 대학원생 조교
4. 권영국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변호사
5. 기선 인권활동가
6. 김경희 방과후강사 특수고용노동자
7. 김광중 예술강사
8. 김기완 마트노동자
9. 김동성 조선소 사내하청
10. 김두영 방송 드라마 스태프
11. 김생수 광고 테크노밸리
12. 김선영 자동차 판매노동자
13. 김성련 보라매병원 환경미화
14.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5. 김영곤 대학 비정규강사
16. 김영민 수출입은행 시설관리
17. 김영태 퀵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
18. 김영희 춘천환경 청소노동자
19. 김용철 키스트 특수경비
20. 김정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1. 김정한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22. 김주환 대리운전 노동자
23. 김진 예술강사
24. 김태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
25. 김현준 한국마사회 경비
26. 김혜진 비정규활동가
27. 김화민 화성시 학교상담사
28. 니승안 철도매점 특수고용노동자
29. 남용진 산업은행 승강기

30. 명숙 인권활동가
31.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성악가
32.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33. 문혜진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
34. 민석준 연극치료사
35. 박구용 대리운전 노동자
36. 박대성 인천공항 보안검색
37. 박순향 서산톨게이트 수납원
38. 박순화 카이스트 청소
39. 박유종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0. 박정식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
41. 박정훈 라이더
42. 박혜성 기간제교사
43. 박희주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44. 서광수 현대위아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 서재천 중소기업진흥공사파트너스 비정규직
46. 서정남 현대모비스 광주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7. 소영호 건설일용 노동자
48. 손창식 디지스터과학기술원 연구원
49. 송경동 시인
50. 신재탁 KT상용직 선로배선
51. 신정웅 맥도날드 크루
52. 심인호 동희오토 사내하청
53. 안명자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
54. 안명희 출판노동자
55. 안병호 영화산업 촬영스텝
56. 안재연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7. 양태인 현대모비스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재
59. 오세중 보험설계사
60. 오수영 학습지교사
61. 원우석 서울시공무직 하수담당
62. 유아 재택집배원
63. 유희희 기륭전자
64. 윤성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65. 윤지선 인권활동가

66. 윤호상 현대위아 안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7. 이경자 연세대학교 환경미화
68. 이동민 무용인
69.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
70. 이선인 비정규직 노동자
71.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72. 이연순 서울대병원 환경미화
73. 이영철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74.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
75. 이주용 한국잡월드 군체협강사
76. 이종원 동서울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77. 이진욱 학교 방과후 강사
78. 이태성 발전소 운전정비
79. 임도근 로칼크린환경 재활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0. 장성기 동우공영 시설관리
81. 전문희 비정규직 코레일 승무원
82. 정범채 인터넷설치 SK수리기사
83. 정용식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지회
84. 정인택 비정규직 노동자
85. 정준현 위아 광주공장 하청 노동자
86. 제유곤 인터넷설치 LG수리기사
87. 조현철 예수회 신부
88.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89. 차현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90. 최성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1. 최진영 장애인노동자
92. 태운호 쌍용양회 비정규직
93. 함형길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4. 현린 사진작가
95. 홍승완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 노동자
96.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시설관리
97. 홍철희 연극인
98. 황건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9. 황미란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100.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

<첨부자료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거리에서 비정규직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비정규직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들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목소리를 전합니다.

○ 다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풀어갑시다

작년 5월 인천공항에 방문했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비정규직 문제는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재벌이 쌓아둔 것 가져와야 가능합니다. 정말 힘있게 밀어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기대가 실망으로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직접 들은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직접 만나고 함께 풀시다.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 풀어 갑시다. - 거리에서 받은 사연

1. 괴롭힘과 폭행, 노조 파괴, 해고, 이제 멈춰야 합니다.

○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차현호입니다.

저는 아사히글라스에서 TV와 모니터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유리가루 분진을 마시면서 일했습니다. 노조를 만들자마자 178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온전한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배를 만드는 사내하청 노동자 이성호입니다.

구조조정으로 3만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되고 임금이 삭감됐지만, 여전히 조선소의 직접생산 업무는 하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상시지속 하청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 대우조선에서 전기공으로 일했던 김동성입니다.

지난 2~3년동안 구조조정으로 거제에서만 3만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스스로 단결해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황호인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해고 위협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이병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했습니다. 세상사 가정의 화목이 제일 먼

저라는 것이겠지요. 근데, 가정의 화목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노동이 존중받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파리목숨 비정규직들에게 화목한 가정이란 것은 머나먼 얘기입니다. 문대통령님 저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쫓겨난 노동자입니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고 일자리창출과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아이쿱생협 27만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조성되었으며 17개 공방과 57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자랑스런 구례자연드림파크입니다. 하지만 18년 국정감사에서는 부당징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전국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17년7월 노조결성이 시작된후 노조탄압으로 지회장 적응장애 산재인정. 노조간부등 6명 직장괴롭힘으로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등과 같은 형태의 끊임없는 지속적 반인권. 반인륜적인 노조탄압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노조인정과 잘못도 없이 내쫓긴 8명의 일자리 회복. 원직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판매는 IMF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졌고, 동일한 노동과 원청의 관리와 지시를 받고 있지만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4대보험도 없고, 10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리점 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됐지만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 되었고, 대부분 10년 이상 계약 갱신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까지 정규직도 받지 않는 부진자 집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감사를 나오면 배우자 통장까지도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9월에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법내노조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현대기아차는 악랄하게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기아차 8개 대리점을 폐쇄하고,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집단해고 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창구단일화절차 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탄압과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실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2018년 8월16일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은 거부되고 있으며, 대리점 소장을 통한 폭언과 폭행,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산 소재 현대자동차대리점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소속으로 천안시의원도 여러차례 한 인물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계약해지 통보한 상황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대리점소장들이 법정에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검찰조사과정에서, 하나같이 현대기아차 원청의 지시로 할 수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증거로 2018년 6월 14일 현대기아차를 고소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참고인조사 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하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고된 즉시 수입은 0원이 되고, 생활고에 빠져

가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이를 잘 아는 현대기아차는 노동조합확산을 막기위해 이를 계속 악용하고 있고, 노동3권의 기본인 단결권조차 심각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의,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를 철저히 수사하고, 또한 20년간 직접 관리와 지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해 온 현대기아차가 직접고용으로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을 책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KT상용직 노동자 김철수입니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KT하청업체에 속해 30년 동안 상시·지속적으로 외선 통신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착취와 불법경영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란 사측의 노동조합 불인정과 탄압,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12월10일 기준 대구경북지회 50일, 강원지회 39일 차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직업군인체험 담당 강사 이주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을 내세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시켰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싶다는 체험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우리 직업은 일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을 쉬지않고 김천시민의 재산과 생명및 안전을위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관제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최저시급, 복지후생 하나도 없이 4조3 교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정규직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은 해고된 상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 산업은행 승강기관리 노동자 남용진입니다.

산업은행 행우회가 만든 용역회사 두레비즈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로서 산업은행에서 시설관리직 승강기 담당자로 7년째 근무 중입니다. 사측은 정규직전환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자회사 전환을 표결 처리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산업은행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합니다.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이연순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이연순입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매일 서울대병원의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직접고용, 모든 차별 해소를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 동서울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이중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사업본부내 1만여 명 모든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로 정부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ZERO정책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 박정석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회사 설립 18년간 320억 원의 하청 비정규직 수익금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자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용산우체국에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약속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원합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용역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다수결 방식으로 전환 방식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 정권의 제1호 공약 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춘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김영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으로 10년 넘게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 중입니다. 특히 춘천시 소각장/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요구하며 투쟁하다 해고되어 1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중입니다.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화입니다.

○ 도로공사 서산톨게이트 수납원 박순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는 정규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장이 도로공사가 아니라 외주사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번 정규직전환 정부정책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다시 한번 고통입니다. 이미 1심 2심 불법파견 소송에서 이기고 대법에 올라가있는데, 도로공사는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 강행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설립을 중단하고, 정부는 진정한 비정규직수납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디지스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1. DGIST의 모든 상시·지속업무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2. DGIST 사측과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3. 행정편의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사측의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
4. 전환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DGIST는 적극 노력하라!

3.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극 심리상담사(연극치료사) 민석준입니다.

예술 심리상담사들은 초단기 계약에 늘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마음의 건강을 함께 보듬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용식입니다.

포스코에서 1988년부터 천장기중기 운전업무등을 담당하는 정용식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임금은 절반도 안 되고 일은 힘들고 각종 차별에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으나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원.하청 차별을 없애주시고, 하청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 대학원생 노동자 구슬아입니다.

대학원생의 노동 없다면 대학의 연구와 행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들을 근로장학생으로 분류하여 '최저시급, 4대보험,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 해 왔습니다. 노조 설립과 함께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자 올해 초에는 여러 사립대에서 대학원생 조교를 졸속적으로 정리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및 권리 보장이 시급합니다.

○ 맥도날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여름에 폭염수당100원을 이야기했더니 한파에 계약만료로 해고 될 처지입니다. 계약만료 비정규직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1~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쓰고 버리던 라이더들을 이젠 플랫폼 품이란 이름으로 하루 중 바쁜 시간에만 쓰다 버릴 수 있는 배달대행라이더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장님 신분이라 4대보험도 퇴직금도 유급휴가도 없고, 배달대행용 보험료는 1년에 300~500만원 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교업무를 병행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연구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에 매진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저 한 명 뿐일까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공부도 계속해서 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조교일을 하고 있지만 학업을 마쳐도 장래는 불확실 합니다.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업 및 연구 장려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거리에서 받은 사연

○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자동차 엔진을 조립하고 있는 서광수입니다.

현재 저희는 최저시급인 7530원도 받지 못하면서 불법파견 노동,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 차별없는 노동 존중의 생산현장을 요구합니다.

○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경자입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정년퇴직자 자리 인원충원과 구조조정 철회와 생활임금 요구합니다.

○ 두아이의 엄마 최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복직을 준비 중인데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면 어디 맡길데가 없는 입장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네요. 선택지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두고 온 종일 연장근로까지 해야 되는 직장맘이거나, 그냥 시간제 일자리 뿐입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한대서 면접을 가도 실제 조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탄력근로 유연근로를 해 달라는데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일하면서도 아이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가정양립은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요? 탄력근로 유연근로 꿈수없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정친화적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 거리에서 받은 사연

4.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책 만드는 노동자 안명희입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라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외주 편집자, 외주 디자이너 등)라서, 문화예술 노동자(작가/일러스트레이터/번역가/대필가 등)라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은 아예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같은 출판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 보험설계사 12년차인 오세중입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판매 수당을 삭감하는 등 온갖 부당한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노동3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5.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잘못을 저지른 회사를 처벌해주십시오.

○ 발전소 운전·정비 비정규직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운전·정비를 하며 20년째 용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우원식의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대로 발전소 사망 중 대재해 중 97%가 하청업체 노동자 입니다!!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발전소 민영화의 결과는 죽음과 고용불안입니다.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도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정부 명령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해 엄벌해야 합니다.

6. 예술가도 노동자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극인 홍철희입니다.

저는 12년차 활동하고 있는 36살의 연극배우 홍철희입니다.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예술에 대한 가치와 그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년동안 연극을 통한 수입이 일반 직장인의 1년 수입보다 적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직업란을 적을 때면 기타로 겨우 분류되는 연극배우.

제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예술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무용인 이동민입니다.

저는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운영위원입니다. 예술인의 99.9%는 프리랜서라는 그럴듯 한 이름아래 가리워진 비정규직 예술노동자입니다. 노동과 삶이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생존과 창작은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 사진작업과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현린입니다.

문화산업과 도시재생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예술인들과 문화활동가들은 자유직종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은커녕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술인과 문화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7.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학교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 기간제교사 박혜성입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온갖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온전하게 교육에 임하려면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이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노조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안명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안명자 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공정임금제 정규직 임금80프로를 요구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당당한 교육주체로 일하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직제를 요구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 김광중입니다.

정부가 초단시간으로 강의시간을 제한해,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4대보험 적용을 요구합니다.

○ 방과후 학교 강사 이진욱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지만 사교육업자나 학원강사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업체위탁'으로 많은 수수료를 떼이기도 하고 교육의 질도 낮아집니다. 민간위탁을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8.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원합니다.

○ 기륭전자 노동자 유희희입니다.

불법파견에 맞서 10년을 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로공단을 비롯한 공단지역에서는 3개월, 6개월짜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파견의 형태가 호출형으로까지 변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의무만 있고 사업주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파견법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 현대위아 안산공장 하청노동자 윤호상입니다.

현대위아 안산공장에서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 프린트샤시, 리어샤시를 조립하여 직서열로 납품을 합니다. 원청의 정규직 제로 공장에서 노조가 있기 전 현대위아 안산공장 조합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공장 가동률에 따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노조할 권리 쟁취와 고용안정 쟁취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합니다.

○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이완규입니다.

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자동차 도어를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2015년 공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공약 실천해주시시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화를 요구합니다.

○ 천주교 신부이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인 조현철입니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의 착취구조인 비정규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끝>